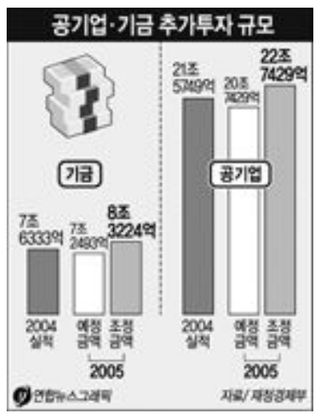
공기업·기금투자 3조1천억 늘려

■ 黨政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일자리 창출 10만개 줄여 30만개로
올성장률 목표치 4%대로 하향조정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과 기금의 올해 투자규모를 추가로 3조1천억원 늘리고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을 올해말까지 3조3천억원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장입지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의료, 교육, 보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는 기존의 5%에서 4% 안팎으로, 일자리 창출목표는 40만개에서 30만개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 공공분야에서 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에 추가로 3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이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올해말까지 3조3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신규로 2조원 확대하고 관광기금 등 8개 기금을 통해 1조731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투자유치사업(BTL)으로 1조원,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권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원어치 발행을 각각 집행하고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도로, 항만, 철도 등 민자사업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민간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당정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보육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추진,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추가 확대 여부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경쟁 탈락자의 자활 능력 배양 등 사회안전망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흡연사망 2020년까지 86만여명"

연세대 지선하교수팀 추정
흡연자 암에 걸릴 위험도
비흡연자보다 6.5배 높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암에 걸릴 위험도가 최고 6.5배까지 높으며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인 86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지난 92~95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17만8천여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11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흡연으로 숨진 사람이 4만639명(남자 3만5천315명, 여자 5천324명)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흡연자가 주요 암에 걸릴 위험도를 보면 남자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방광암 2.25배 등으로 높았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후두암 4.2배, 폐암 2.83배, 자궁내막암 2.13배 등으로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편이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3년간 흡연과 관련된 누적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61만8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16년동안에는 86만4천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1981~2003년 사이에 흡연과 관련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은 뇌졸중(10만5천여명) 이었으며 다음으로 폐암(9만2천여명), 위암(5만5천여명), 간암(3만7천여명), 허혈성 심근경색(2만8천여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흡연이 폐암 뿐 아니라 뇌졸중과 심장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지난 2003년만 놓고보면 흡연에 따른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천616명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흡연 관련 전체 암 사망자(1만7천322명)의 43.9%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팀은 또한 2003년 전체 진료비 13조7천억원 중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4천137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거의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통합혁신도시 재검토해달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4일 오후 순천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통합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해 줄 것을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건의키로 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사법보좌관 후보 50명 선발

대법원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되는 사법보좌관제를 위해 법원 서기관(4급) 중 22명, 사무관(5급) 중 25명 등 총 47명의 사법보좌관 후보와 3명의 예비후보를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기존 판사의 업무 중 경매·제권판결·공시최고 등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非訟) 업무와 집행문 부여 등 공증(公證) 업무 가운데 법률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일부를 처리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인지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사건은 법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김우중씨 출국권유 임원 2명 소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4일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대우 임원이었던 K씨와 S씨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1일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J씨 등 2명을 불러 출국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전히 "채권단과 임직원이 출국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을 상대로 당시 출국 전후 상황을 파악하면서 출국권유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은 먼저 김씨와 당시 대우 임원진들을 통해 정치권과 채권단 등의 출국압력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사법처리를 면해주려는 목적에서 출국을 권유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법리적 검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설상가상

'행담도 의혹' 김재복씨 등 4명 주중 소환

행담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번 주중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자 4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의뢰자 4명 중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상무 원모씨를 먼저 불러 올 2월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 발행을 주선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원씨는 오늘 오후 2시께 출두했다. 오후 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조치한 뒤 1~2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씨를 상대로 EKI가 자본투자협약 등을 맺은 도로공사의 동의없이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숨긴 채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측에 회사채를 전량 매도한 배경 등을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연수마친 중·고영어교사 토익평균 718점

공기업 신입사원 보다
평균 123점이나 낮아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토익(TOEIC) 점수는 평균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3월부터 한국교원대와 계명대에서 실시된 6개월 연수에 참가한 중고교 영어교사 272명의 모의 토익시험 성적 분석 결과, 평균 718점이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12개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841점, 40개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778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교사의 평균점수가 747점으로 남자교사의 656점보다 91점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대구가 평균 803점으로 1위, 전북이 평균 798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광주는 평균 767점으로 6위, 전남은 624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727점으로 전체 16개 시도가운데 7위였으며, 최하위는 평균 603점을 기록한 경북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 교통사고사망 半減期

13년…세계 최단

경찰청은 4일 펴낸 '2005년 교통사고통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천5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91년(1만3천429명)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半減期)인 13년은 캐나다(21년), 독일(25년), 뉴질랜드(27년), 프랑스(28년), 호주(30년), 스웨덴(30년), 일본(33년), 영국(34년) 등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875명으로 전년보다 21.4% 줄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3% 늘어난 1천73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26.4%에 달했고, 2000년 18.1%, 2001년 19.5%, 2002년 22.1%, 2003년 23.7%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정승인공고

망 엽선균(370305-16589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 706
공 고 인:박금순, 엽종옥, 엽인숙, 엽선희, 엽삼순, 엽경숙, 엽영춘, 엽도훈
한정승인수리일:2005. 6. 29
공고기간:2005. 7. 5~2005. 9. 3
연 락 처:광주 북구 오치동 1020-13 엽종옥 (011-9614-7659)

채권·채무 신고공고

(전남)다시신용협동조합은 2005년 7월2일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관리실시 및 채무의지급정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일자부터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등의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조합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조합원의 예금원리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의 조합원중 채권(예·적금등) 및 채무(대출금등)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우리조합에 신고(조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내에 신고(조회)가 없는 경우 우리조합에 대한 채권·채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장소:다시신용협동조합(전화:061-335-4133~4)
2. 접수기간:2005년 7월 18일~2005년 7월 29일
3. 지참물
-우리조합 발행 통장 또는 증서 -우리조합 거래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통(미성년자인 조합원(예금주)의 경우 친권자 확인용)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우리조합에서 위임장 서식 배부)
-채권 및 채무신고서(우리조합에 비치한 서식 사용)
2005년 7월 2일
다시신용협동조합 관리인

경영관리공고

1. (전남)다시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으로 2005년 7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기간중 경영관리가 실시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예탁금 및 적금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또한 (전남)다시신용협동조합은 동법시행령 제21조의4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원 보호 및 경영정상화 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안에서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직원 박무선을 2005년 7월 2일자로 선임하였으며, 관리인은 동법 제86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남)다시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일
(전남)다시신용협동조합

공시최고

사 건 2005카공 28
신청인 한동준(420801-1644016)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65-28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5. 10. 24.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자기앞수표
· 번 호:라다70905840~41
· 금 액:각금1,000,000원(2매)
· 발 행 일:2005. 6. 22
· 발행지(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장흥군지부)
· 최후소지인:한동준
2005년 7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양환승

분 실

자기앞수표
No. 라가38575319
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05년 1월 28일
발행처 광주은행 신가동지점
최후소지인 오정자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자기앞수표
No. 라나22138831~3, 라나22138858~9
금액 각금1,000,000원(5매)
발행일 2005년 6월 28일
발행처 한국외환은행 광주지점
최후소지인 박삼구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자기앞수표
No. 바가10006959
금액 금5,000,000원
발행일 2005년 6월 28일
발행처 광주은행 동구청출장소
최후소지인 박삼구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음진·모집·회생·영업·모임
사업공유·개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전화 062-227-3600 · FAX 227-3600

장성군공고 제2005-213호

장성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안) 공람도면 공고

1. 장성군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중에 있으니 본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안)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매화지구	장성읍 영천리 매화동 일원	30,589.65	
충무지구	장성읍 영천리 충무동 일원	83,414.50	

나.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 및 의견제출장소:장성군청 도시과 및 장성읍사무소
라. 관계도서: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사항: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도시과 건축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1-390-7474)
2005년 7월 5일
장 성 군 수

"클린코리아, 국가경쟁력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 공고 제2005 - 5호

분묘개장공고(2차)

전라남도농기51320-1676(2003.9.30)호로 인기된 해남 만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내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이장처리 하겠습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수량(기수)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산46-1	임야	2

2. 분묘기수:2기
3. 개장사유:만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시행
4. 공고기간:2005년 6월 1일~2005년 8월 30일(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무연분묘는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안치
6. 개장장소:해남군 공설묘지(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산467-3번지)
7. 안치기간:안치후 10년
8. 신고및연락처: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 지역개발팀 (061-535-0264)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 만안지구 공사사무소 (061- 537- 0143)
9. 기타사항
◦분묘로써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묘개장공고 이후에 발생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개장장소 및 방법(매장또는납골)등은 공고인의 사정에 따라 타 허가시설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 개장신고시 관할 행정기관장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안치기간조정 요구 시 변경될 수 있음.
2005년 7 월 5일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장

신안공고 제2005-267

분묘개장공고(2차)

『신청사건립공사』 지구내 편입된 분묘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5일
신 안 군 수

1. 분묘소재지: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
2. 분묘기수:2기
3. 개장사유:신청사 건립공사
4. 개장방법:신문공고 기간 만료후 무연분묘 임의 개장코자 함
5. 이장장소:전남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산29번지 (학교리 공동묘지)
6. 공고기간:2005. 7~2005. 9(3개월간)
7. 신 고 처
◦전남 신안군 건설과 (☎061-240-8554) (FAX 061-240-8598)
◦전남 신안군 압해면사무소 (☎061-240-8173)
※ 이후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산행

▲팔성산악회(회장 이병문) 지리산 왕시루봉 피아골 7월5일(화) 08시 백운로타리 팔성관광앞, 08시20분 예술회관후문 T.011-605-3477
▲청록산악회(회장 박길석) 충북 제천 만수봉 송계계곡 7월6일(수) 07시 교원공제조합, 07시10분 문예회관후문 T.011-636-4859
▲이대로산악회(회장 정명진) 전북 진안 구봉산 7월6일(수) 08시 동아병원,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 T.011-708-3074, 011-637-3342
▲염주산악회(회장 최병주) 거제~가라산,노자산 7월7일(목) 08시 염주체육관출발,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 T.011-608-2208
▲거목 산악회 경남 함양군 지리산 영신봉 7월7일(목) 08시 광주공원출발,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입구 T.018-621-3523, 011-603-1396
▲나사모산우회(회장 문대성) 울릉도~독도관광 7월9일(토)~10일(1박2일) 04시30분 광주역광장 T.062-525-7223, 011-636-6140
▲팔성산악회(회장 송교천) 거문도백도 7월9일(토) 05시30분 백운로타리 팔성관광앞 회비: 60,000 T.011-605-3477
▲울타리산악회(회장 박문규) 충남 금산 선야봉 7월10일(일) 08시 국제호텔옆(조대앞, 산수오거리, 은병원앞 경유) T.011-603-1029
▲자연보전답사(회장 박연규) 지리산~어름터 7월10일(일) 07시30분 무등경기장 T.011-602-2905
▲광주환경보존산우회(회장이명재)지리산 촛대봉 한신계곡 7월10일(일) 07시 고려시멘트앞 T.011-649-4953
▲삼각산악회(회장 복성근) 지리산, 백무동,한신계곡 7월10일(일) 08시 두암동 88 레니스장앞 T.011-644-2730
▲빛고을중앙산악회(회장 박종식) 충남 예산 가야산,대천해수욕장 7월10일(일) 07시 염주체육관 T.011-637-5188
▲산과희망(회장 조규철) 지리산 초암릉 대원사 7월10일(일) 07시 광주역앞 T.011-619-4609
▲비두리산악회(회장 한상옥) 충북 제천 동산~작은동산 7월10일(일) 07시 광주역 T.017-607-4558, 528-3716
▲광주산기족(회장 권기현) 남원 수정봉~구룡계곡 7월10일(일) 08시 대인광장, 8시10분 동광주삼성홈플러스 T.011-609-7653
▲광주산사랑모임 지리산 수정봉(805m) 7월10일(일) 07시30분 무등경기장 후문 수영장주차장앞 T.010-7171-2682, 011-602-5224
▲샘산협산악회(회장 강호경) 보길도 격자봉 7월10일(일) 06시30분 방림파출소앞 T.016-609-0659
▲한길산악회(회장 최대송) 연석산, 운장산 7월10일(일) 07시 광주역 T.383-3253, 010-7619-0559
▲헤오름산악회(총무 김성택) 경남 거창 한성산 7월10일(일) 07시30분 대인광장 신평회관앞 T.011-612-7852
▲광주거북이산악회 함양 황석산 7월10일(일) 07시00분 무등경기장(문예예술회관경유)cafe.daum.net/kwjtt T.017-602-0077, 011-602-8986
▲솔잎산악회(회장 송달규) 부산, 가덕도, 연대봉 7월 10일(일) 07시30분 광주역앞 T.011-608-7627
▲거북이테마산악회 전북 부안군 이도 방월봉 7월10일(일) 07시30분 현대백화점정문앞 cafe.daum.net/hk2380 T.062-223-3951, 010-3642-6346